



# Domaine Olivier Leflaive, Bourgogne "Oncle Vincent" 도멘 올리비에 르플레브, 부르고뉴 "옹클 뱅쌍"

## 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

올리비에 르플레브는 엄격한 양조 철학 하에 포도의 재배부터 병입 까지 전통적인 비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100% 유기농 부띠끄 도메인 와인으로,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이다. 올리비에의 형 Patrick과 삼촌 Vincent의 도움으로 Domaine Leflaive를 통해 습득한 모든 지식을 다른 부르고뉴 와인 양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84년 10월, Olivier Leflaive 를 설립했다.

1993년 작고한 올리비에 르플레브의 삼촌 뱅쌍 르플레브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빌려온 와인이다. 올리비에가 자신의 와인 하우스를 단독으로 설립할 당시 그의 롤 모델이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후원자로 르플레브가의 와인 메이킹 명맥을 이어가는 데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현재 도멘 올리비에 르플레브의 명성을 쌓게 한 주역 뱅쌍에게 경의를 표하는 와인이기도 하다. 2012 빈티지로 탄생한 새 그랜드 버건디 옹클 뱅쌍 포도밭은 Puligny 포도원과 인접하고 있어 더 생생하고 강렬하며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아로마를 입 안 가득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, 버터리한 노트에 흰 과일류의 풍미와 사랑스러운 산미, 크림리한 질감에 잘 정돈된 구조감이 더해져 역시, Puligny!를 절로 외치게 하는 와인이다.



Bourgogne / France



Chardonnay 100%



2016



13.5% / 750ml



실트질의 점토성 토양



12개월 오크 배럴 숙성 (3개월 스테인리스 탱크)



얇은 황금빛



버터리한 노트에 배, 복숭아 등 흰 살 과일의 아로마



레 세띠에 비해 강렬한 시트러프 풍미와 입 안을 가득 채우는 크림리한 텍스처, 오크 피니쉬



생선 요리, 조개류, 흰 살 고기를 활용한 요리



WE: 90 Point(2016 Vin)